

하무뚝 딜리 팀의 10월 이야기



Domingu	Segunda	Tersa	Kuarta	Kinta	Sesta	Sabadu
1	2 YMCA센터 벽화 작업 마무리	3 피스커피 일손 돕기	4	5 비자 연장 싸메 갈 준비	6 간사님들과 점심식사	7 대청소 루이스와 쇼핑
8 싸메 갈 준비	9 딜리-> 싸메	10 싸메-> 로뚜뚜 로뚜뚜 간사님들과 의 만남 로뚜뚜 초등학교 선 생님들과의 만남	11 제라마 소그룹 방문 마을 라운딩	12 초등학교 학생과의 첫 만남 아띠끌라쎄 홍보용 판넬 제작	13 초등학교 오전 수업 진행 및 참관 아띠 끌라세 홍보	14 아띠 끌라세 시간표 작성 아띠끌라쎄 홍보
15 아띠끌라쎄 홍보	16 아띠끌라쎄 수업 진행	17 아띠끌라쎄 End Poverty campaign 진행	18	19	20 아보 베드로, 세빠 수꾸와의 만남	21 휴식 및 대청소
22 제라마 그룹 주변 산책	23	24	25	26	27 로뚜뚜 -> 딜리	28 휴식 및 장보기
29 미사 참가 마웅 다비드 집 방문	30 휴식	31 Fina 생일 파티				

로뚜뚜 마을 소개

오전 수업 및 아띠글라쎄

일상

개인에세이

사진전



로뚜뚜 마을 소개

로뚜뚜 마을 가는 길



아띠들은 딜리에서 7시간을 달려 싸메 ymca 센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잔 뒤 또 1시간을 달려 드디어 로뚜뚜 마을과 만났습니다! 가는 길에는 티모르에서 3번째로 높은 산인 가부라키 산을 볼 수 있었는데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 참! 가는 길에 쉽게 볼 수 없는 커피 꽃도 많이 보았는데 이 하얀색 꽃을 본 사람은 운이 좋다고 하네요! 데헛~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마을이 된 로뚜뚜 마을! 로뚜뚜 마을은 해발 1000m가 넘는 곳에 위치한 산속 마을입니다. 그래서 낮에도 쌀쌀한 바람이 불어와 아띠들은 긴 옷이나 점퍼를 챙겨 입기도 합니다.

피쓰카페 주 생산지인 로뚜뚜 마을!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9개의 소그룹은 피쓰커피 사업에 사용되는 커피 원두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있습니다. 신이 주신 선물인 커피 채집을 끝낸 10월의 로뚜뚜에서는 한창 햇빛에 커피콩을 말리고 있었습니다.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첫 모습을 생산지 마을에서 직접 볼 수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로뚜뚜 마을



산속에 위치한 로뚜뚜 마을은 가스 사용이 어려워 음식을 할 때 불을 때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어린 친구들도 부모님을 따라 산에서 장작을 구하러 갑니다. 또 전선이 닿지 않는 산골 마을 로뚜뚜는 전기 사용을 위해서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합니다.



로뚜뚜 마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하나씩 있습니다.
저희의 주 활동은 학교에서 만난 로뚜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어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띠들은 로뚜뚜 마을 학교 안에서 마을 이웃으로 연결된 관계를 볼 수 있었는데요.
학교 선생님들은 친구 부모님이자 부모님의 친구이고 학생들은 학년 구별 없이 서로서로 알고 지냈습니다.

활동 소감



Anis : 로뚜뚜 마을. 그곳은 진부한 말이지만 천혜의 환경을 지닌 보물 같은 공간이었다. 카페 나무를 비롯한 낮선 열대 식물들로 가득한 풍경은 현실이 아닌 영화 속 가상의 공간 같다는 느낌을 불러 일으킬 만큼 아름다웠다. 그리고 보석처럼 빛나는 별들이 파도치는 밤하늘은 매일 밤 내 시선과 정신을 붙잡고 끌어 당긴 채, 놓아주지 않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이런 로뚜뚜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대한민국, 그리고 티모르의 수도인 딜리에서 지내는 것과 확실히 다른 느낌을 주었다. 비록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문명의 혜택은 거의 받을 수 없었지만, 봐도 봐도 적응이 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풍경이 마치 나를 동화 속 인물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켜 매일 매일이 설렘이었다. 이런 장소에서 다소 무뎡뎡하지만 정감 있는 지역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쉽게 겪지 못할 따스함을 가득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런 마을에서 잠깐이나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행복이자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활동 소감



Fina: 딜리에서 머물 때, 곧 로뚜뚜로 이동하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로뚜뚜 말리린! (로뚜뚜는 추워!)’라고 말했다. 날씨가 추워지면 바로 감기에 걸리는 나로서는 로뚜뚜 날씨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다. 허나 걱정과 달리 로뚜뚜의 낮은 선선한 바람에 활동하기 딱 좋은, 밤에는 조금 추워 긴 옷을 입고 자면 되는 정도의 한국 가을날씨였다.(그래도 로뚜뚜 저녁의 샤워는 너무 춥긴 하다!)

샤워 후에는 머리를 드라이기로 꼭 말려야 했던 내가 로뚜뚜에서 살면서는 저녁에 찬 물로 샤워를 하고, 샤워 후 자연바람 그대로 머리를 말리는 큰 변화를 하였다. 아, 또 한 가지 큰 변화가 있는데 이제는 벌레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딜리와는 아예 다른 날씨와 자연환경에 처음은 낯설었지만, 지금은 마루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책을 보기도하고, 기타를 치기도하고, 멍 하니 아름다운 로뚜뚜의 풍경을 감상하기도 한다.

로뚜뚜 마을은 피쓰커피의 생산지 마을이다. 내게는 이런 로뚜뚜 마을에서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경험이다. 자주 마시던 커피가 생산되는 마을에서 직접 머물며, 그 마을의 직원들과 ‘관계’를 맺고 만들어 나가는 것은 내게 큰 의미가 있다. 공정무역 피쓰커피의 ‘관계’안에 우리 라온아띠가 포함되어 같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경험인 것 같다!

딜리보다 짧은 기간 동안 로뚜뚜마을에서 살았지만 나는 로뚜뚜에서의 활동이 기억에 강렬히 남으며, 로뚜뚜라는 마을에 정이 많이 들었다.

활동 소감

lopez: 딜리라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인 큰 도시에서 한 달을 넘게 살다가 그 생활에 적응하고 있을 무렵, 활동지를 바꿔 YMCA 피스커피의 생산지 마을인 사메의 로뚜뚜에 왔다. 오기 전 머리 속에는 낙후된 열악한 마을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지만 어리석었다. 나는 사메에 도착하자 풍기는 이색적인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 정신 없이 사진기 셔터를 자꾸만 누르고 있었다. 이름은 모르지만 자기 색깔을 선명히 발휘한 꽃들이 집집마다 피었는데 너무 아름다웠다. Anis와 트렁크에 타서 주변 풍경을 보며 마치 반지의 제왕 속 호빗족의 마을에 들어온 것 같다며 감탄을 하고 또 했다. 신선하고 상쾌한 바람이 딜리의 더운 날씨에 찌들었던 나의 몸 구석을 정화시켜주었다. 비현실적인 자연의 맛을 느끼며 도달한 마을, 우리의 마을 로뚜뚜는 재정비를 위해 잠시 딜리에 내려와 있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리고 있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곳이다. 가브라키산과 형제뿔 되어 보이는 그런 산, 곳곳에 자리잡은 개성 넘치는 알록달록한 집들과 전통 가옥 우마루릭이 적절히 섞인 모습이 사랑스럽다. 산 위의 나보다 아래에 있거나 기슭에 엮혀 뚝뚝 떠다니는 구름 한 점과 그 사이로 비치는 아기 햇살의 웃음이 사랑스럽다. “지나(중국인)”하며 부르다가 다가가면 웃거나 수줍음을 타는 지금은 ‘꿀레가(친구)’가 된 마을의 아이들이 사랑스럽다. 로뚜뚜의 밤이 오면 산 중 어디에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어두컴컴할 것 같지만 쏟아지는 별과 맑고 깨끗한 달이 빛이 되어 주변을 환하게 비춰준다. 자연, 경치, 풍경에 집중할 수 있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곳이 로뚜뚜다. 전기 불빛으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일보다 밖에 나와 별의 연주로 풍성해진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어 고맙다.

하루하루 내가 사는 마을의 배경은 영화 속 어딘가 혹은 동화 속 어딘가 들어와 있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취미가 새로 생겼는데 그게 뭐냐 바로 ‘마을 걷기’다. 요즘 나는 쉬는 시간에도 그리 멀지 않은 집 근처를 거닐며 마을을 느끼고 있다. 어디든 있는 돌의자에 앉아 잠깐 사색에 잠기고, 책을 읽고, 노래를 듣는다. 다만 근처에 아이들이 보이면 같이 논다. 구슬치기, 공기놀이, 술래잡기...,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놀이’는 만국 공통의 오락인가보다. 하하호호 웃으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야속한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는 마을이다. 전기가 없지만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는 마을을 나는 사랑한다.

활동 소감

Beti: 한국에서 로뚜뚜 마을로 가는 길은 정말 멀었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8시간, 발리에서 경유해서 3시간, 그렇게 도착한 딜리에서 자동차로 8시간을 이동해야 합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멀리 있어서인지 로뚜뚜 마을에서 보낸 시간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남반구의 작은 섬의 산중 마을에서 내가 간 게 신기하고 거기서 생산된 커피가 가공과정을 끝내고 한국으로 간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딜리에 처음 왔을 때 동티모르의 속도에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로뚜뚜 마을의 리듬을 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로뚜뚜 마을은 전선을 연결할 수 없는 깡촌이기 때문에 전기 사용을 위해서 태양열 에너지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에너지 설비 부분이 고장이 나 이전만큼 전기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 보다 이를 지속하도록 유지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커피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올해는 지구 온난화때문에 커피 수확량이 1/10로 줄었다고 합니다. 한국 같은 북반구 사람들의 풍족한 생활과 산업으로 심화된 지구온난화 현상이 남반구의 작은 로뚜뚜 마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큰 영향을 받은 걸 보고 새삼 추상적 개념이던 지구촌 세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에서 내가 주로 활동한 곳인 로뚜뚜 초등학교에서 마을의 인간 관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두는 모두가 서로를 알고 있고 어떤 연결고리로든 이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까지 늘 도시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밀접한 인간 관계가 처음에는 낯설고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길을 지나가며 마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따르띠 인사를 건네도 다들 반갑게 인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많지 않은 산골 마을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건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쉽게 다가오는 딜리의 사람들과 다르게 내가 먼저 다가가 어설픈 떼뚱어로 대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쉽게 친해질 수 없어서 당황스러웠지만 관계를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전 수업 및 아띠끌라쎄

학교수업 – 학교&라온아띠 첫 만남



로뚜뚜마을에 머물면서 아띠들은 초등학교 오전 수업에서 선생님을 도와드리거나 직접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오후에는 저희만의 수업인 아띠끌라쎄를 계획하여 활동하였습니다.
학교에 간 첫 날에는 앞으로 같이 지낼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저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수업 – 학교 오전 수업 보조



아띠들은 오전에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의 수업을 참관하거나 선생님을 보조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수업보조나 참관인 줄 알았지만 선생님들의 바쁜 일정 때문에 저희가 그 자리를 메꾸어 직접 수업을 진행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정규수업을 저희가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지만 로뚜뚜 마을에 필요한 부분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활동했습니다.

학교수업 – 학교 쉬는 시간



학교에서의 오전 활동 중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자 아이들과 가장 많이 어울리는 시간은 바로 학교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삼삼오오 모여 같이 동요도 부르고, 춤도 추고, 얘기도 나누고, 간단한 운동도 하면서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띠끌라쎄 - 홍보



아띠 클라세를 시작하기 전 아띠들은 3일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서툰 떼뚱어로 아띠 클라세에 대해 설명하니 아이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반드시 가겠다고 약속하면서 피켓을 들고 같이 홍보도 해주었습니다.
홍보를 끝내고 나서 저희 주위에 모인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했습니다.

아띠끌라쎄 - 수업진행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한 아띠끌라쎄!

1~3학년, 4~6학년, 7~8학년 등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장난끼가 많은 친구들, 매일 찾아와준 친구들, 수줍음이 많은 친구들 그리고 차분하게 열심히 집중하는 친구들과 함께 아띠끌라쎄를 만들어 갔습니다.

아띠끌라쎄 – End Poverty Campaign



10월 17일은 세계 빈곤 퇴치의 날입니다!

아띠들은 이 날을 기념하여 아띠끌라쎄에서 개인 위생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학년 클라세는 동요와 게임 등을 통해 위생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과 둥근 해가 떴습니다를 같이 부르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변형한 라파엑 이하 네한 꾸악 게임을 했습니다.

고학년 클라세에서는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함께 배우면서 손 씻기와 세수, 그리고 양치질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생 교육과 함께 손 씻기에 관한 노래인 빠세 리만송을 함께 만들고 불렀습니다.

아띠끌라세 – 10월 3째주 시간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끌라세1	미술 하트접기 & 게임 상	과학 손 씻기 교육 및 양치질 교육, 파세리만 송 만들기 현재	체육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파엘 이분 로케 아고라) 상	음악 곰 세 마리, 상어가족, 올챙이송,산토끼, 그대로 멈춰라 현재	영어 알파벳송, 요일 달 노래, 369 게임 상
끌라세2	음악 한국동요 곰 세 마리, 상어가족, 뜻도 같이 설명하기 예원	과학 손 씻기 교육 및 양치질 교육, 파세리만 송 만들기 상	미술 하트접기 &게임 예원	영어 알파벳송, 요일, 달 노래 상	체육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파엘 이분 로케 아고라) 현재, 운영
끌라세3	영어 수준 파악하기, 카루타게임 현재	과학 손 씻기 교육 및 양치질 교육, 파세리만 송 만들기 예원	미술 주제정해서 그림그리기 로뚜뚜의 밤 현재	체육 몸으로 말해요, 이름 부르며 공 던지기 게임 예원	음악 팝송같이 부르기 예원

아띠끌라세 – 10월 4째주 시간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끌라세1	영어 영어 동요 현재, 상	체육 몸으로 말해요, 비석치기 게임, 꼬마야꼬마야 예원, 윤영	미술 개구리 접기 & 연못 그리기 상, 윤영	한국어 한국어 귓속말 게임, 기본 일상 회화 배우기 상, 현재
끌라세2	미술 개구리 접기 & 연못 그리기 윤영, 예원	음악 머리어깨무릎발 동요, 여우야여우야 상, 현재	체육 몸으로 말해요, 비석치기게임, 꼬마야꼬마야 예원, 현재	영어 몸으로 말해요, 다이얼로그, 행맨, 빙고 예원, 윤영
끌라세3	시험 기간 때문에 수업 중단			

활동 소감

Anis : 티모르에 와서 가장 당황한 순간을 뽑으라면 주저 없이 로뚜뚜 초등학교에 두 번째로 방문한 날을 뽑을 것 같다. 맘바이와 사메 지역 특유의 억양이 섞인 교감 선생님의 떼똥어를 알아 듣지 못해 일단 벨레라고 대답했었다. 하지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나를 포함해 벨레라고 대답한 모든 팀원들이 각각 교실에 들어가 정규수업을 진행 해야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책을 비롯한 아무런 교제도 없는 상황에서 말이다. 지금 생각해도 식은 땀이 나는 상황이다. 분명 아피 클라세 준비를 위해 로뚜뚜 초등학교 교사분들의 수업을 참관하는 것이 원래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획과 전혀 다른 일정을 수행해야 했다. 다행히 우리 모두가 한국 동요를 가르쳐주거나 영어 수업을 하며 그 상황을 잘 넘겼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은 그 날 하루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로뚜뚜의 초등학교를 방문한 3주에 가까운 시간 동안 참관을 한 것은 고작 2번이었고, 대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정규수업을 준비해서 진행해야 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시간이 지날 수록 우리의 떼똥어와 강의 실력이 빠르게 나아진 점이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두 시간 동안 수업을 할 만큼의 준비는 할 수 있을 수준에 금방 도달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방식이 당황스럽고 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렇게 정규수업을 자주 들어간 덕에 상대적으로 아피 클라세를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강의와 관련 된 어떤 상황도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경험이 부족한 우리에게 너무 잔인한 일이긴 했어도 한편으론 우리를 믿고 기회를 주어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또 무너지지 않고 성장한 우리 모두가 대견하게 느껴진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긴 했다. 그 상황과 관련해 나를 포함한 팀원들이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 개인의 경우 그 불편함을 조금 빨리 해소했었다. 선생님들이 우리를 믿어주듯 나 또한 선생님들을 강하게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수업방식이 잘못되었거나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그 분들도 우리를 믿고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로 인해 기존의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다면 우리에게 아이들을 맡겨 놓고 그동안 밀렸던 교외 업무를 하러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막 로뚜뚜 학교에 온 우리보다 로뚜뚜 학교의 선생님들이 훨씬 더 경험이 많고, 로뚜뚜의 방식에 대해 잘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경험과 판단을 신뢰했고, 그 덕에 불편함을 일찍 해소할 수 있었다. 물론 맹목적인 믿음은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곤 한다. 어쩌면 내가 그곳에 예정보다 더 오래 있었다면 이렇게 맹목적으로 선생님들을 믿는 것이 옳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짧았고, 또 내 이런 믿음이 두려운 결과를 초래하겠다 싶을 때, 나를 붙잡아줄 팀원들과 감사님이 함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두려움과 불편함 없이 앞으로 걸어갈 수 있었고, 그 덕에 나름대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활동 소감



Fina: 로뚜뚜에서 지내면서 드디어 라온아피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느낌을 받았다. ‘아피꼴라쎄’와 같이 계획된 일정아래, 장기적인 활동을 하다보니 그러한 느낌을 받은 것 같다.

산골마을인 로뚜뚜의 학교는 선생님들이 항상 바쁘시다. 선생님들이 부족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업무가 많으셔서 모든 선생님들이 항상 학교에 상주하고 계시지 못한다. 때문에 자율학습을 하는 교실들이 꽤 있다. 라온아피는 이러한 상황 시 자율학습을 하는 교실을 들어가 지도하거나, 직접 대체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사실 나는 공식적인 학교정규수업에 전문성 없는 우리가 들어가는 이 상황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다. 원래 라온아피의 오전 활동은 정규수업 참관 혹은 선생님 보조 활동이었다. 허나 갑작스럽게 아무런 준비 없이 정규수업을 진행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규수업을 진행하는 꼴이 되어버리니 당황스러웠다. 우리가 선생님들의 역할을 뺏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존 로뚜뚜학교의 패턴과 룰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전문성 없는 아피들이 정규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이러한 나의 고민을 코디네이터인 강호간사님과 팀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난 뒤에는 생각이 조금 바뀌면서 불편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진 것 같다. 선생님이 부족한 현재 로뚜뚜 학교상황에서 우리가 선생님들을, 학교를, 로뚜뚜 마을을 돕는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덜 불편하게 정규수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 로뚜뚜마을에서 지내는 동안, 로뚜뚜 마을에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역량이 나에게 있다면 그걸 최대한 발휘하여 마을을 돕는 것이 라온아피의 이상적인 활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요즘은 열심히 오전수업을 보조하고 진행하고있다!

활동 소감

lopez: 평일 주요 일정은 오전에 학교가서 수업에 참여를 하고 오후에 3시부터 4시 반까지 아띠끌라쎄를 진행하는 일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로뚜뚜 초등학교에 갈때마다 어릴 적 등교하던 나의 모습이 겹친다. 그 시절을 잠시 그리워하다가 어느새 도착한 학교에서는 교감선생님께 수업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골고루 들어가 수업에 참여를 한다. 학년에 반이 하나씩 있어서 이 아이들은 집이 이사를 하지 않는 이상 함께 입학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함께 졸업을 한다. 하무뚝(함께) 팀에 꼭 맞는 그런 학교다. 각 학년별로 풍기는 분위기도 다르고, 아이들도 다르지만 다들 너무 순수하고 잘 웃는다. 가만히 있어도 예쁜 아이들인데 함박 웃음까지 짓는다. 그 모습을 바로 보며 나는 너무 행복하다.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면서 한국의 교육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중 느리게 진행되는 수업이 인상적이었다. 글쎄 요즘 한국 초등학교는 어떻게 배우고있나 잘 모르지만 나의 이해 여부를 떠나 빠르게 무언가를 배웠던 기억이 있다. 수업은 늘 빨랐고, 마치 그 날의 진도가 할당량을 채워야 끝나는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여기 우리 학교는 정말이지 느리게 어느 누구 하나 필기가 끝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선생님은 쪽 기다려 주신다. 참관 중 칠판에 적혀 있는 내용을 공책에 받아 적는 내 모습을 보며 “Lopez, 엄청 빨리 적는다.”며 같은 그룹에 앉아 있던 아이가 놀란다. 사실 나도 그리 빠른 편은 아닌데. 효율적인 시간 사용으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까? 사실 잘 모르겠다.

아띠 클라쎄는 평소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내게는 큰 도전이었다. 우리는 미술, 음악, 체육, 영어 같은 과목을 정해서 각자 계획한 클라쎄를 진행했다. 클라쎄를 통해 아이들이 정규 수업에서는 해보지 못했던 활동을 해보길 바랐다. 수업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주제를 가지고 함께 배우고 나눌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첫 클라쎄부터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부담스럽거나 두렵지 않다. 이 활동은 다음을 더 기대하고 기다리게 만든다. 뭘 하면서 함께 놀고 배우고 즐길 수 있을까? 나는 오늘도 행복한 고민에 푹 빠진다.

활동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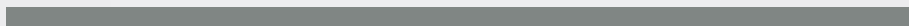
Beti: 로뚜뚜 초등학교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내가 경험했던 한국 교육과의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로뚜뚜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서 1권으로 대여섯명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합니다. 또한 전기나 인터넷도 사용할 수 없고 선생님도 반 수 만큼 딱 6명이 계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모든 학생들이 교과서를 받고 다양한 학습 자료로 공부할 수 있었던 한국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풍요로웠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위치의 아래를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티모르에서는 내가 얼마나 누리고 살고 있었는지를 사소한 순간에 느끼기도 합니다.

오전 수업의 경우 아띠끌라쎄를 위한 참관과 함께 수업 보조를 위해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장과 업무로 자리를 비우시는 선생님들을 대신해 갑작스럽게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떼똥어도 부족하고 아무 준비도 없이 혼자서 2시간의 정규수업을 진행한다는 게 당황스럽고 짜증났습니다. 무엇보다 정규수업에 나 같은 비전문적인 봉사자가 들어가 수업을 진행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팀원 및 간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본 후 마을이 필요한 부분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2명이서 들어가기, 수업에 대한 디렉션 받기 등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아띠끌라쎄는 처음으로 라온아띠로서 책임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진행한 활동이었습니다. 이전 기수들이 진행해온 방식과 비슷하게 하루씩 딜리팀은 방과 후에 영어와 예체능 등을 학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 1시간 반 가량 가르쳤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들에게 대단한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생각보다 미술, 영어 등을 매개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수업의 진행 면에서 미숙함을 느껴왔기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더 열심히 9번의 아띠끌라쎄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전 경험들이 11월에 다시 진행될 아띠끌라쎄에 대한 좋은 피드백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상





싸메에 가기 전, Lopes와 Anis는 티모르 최신 유행 스타일로 머리를 잘랐습니다.
저희 집 마당 한 편에서 간사님이 면도칼과 가위로 직접 잘라 주셨는데, 조금 무서워서 표정이 얼어 붙었습니다.
이발 후에는 이것이 수영인가 머리인가 싶을 정도로 짧아 어색했지만 익숙해지고 난 뒤에는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음식을 직접 해먹었던 딜리와 달리 로뚜뚜에서는 현지 간사님께서 음식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로 먹었던 음식은 인도네시아식 라면인 시답이었습니다. 아띠들은 삼시 세끼 배추 넣은 시답, 참치 넣은 시답, 감자 넣은 시답, 깻잎 넣은 시답, 그리고 그냥 시답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또 아띠들은 넘치는 시골 인심 덕분에 가는 곳마다 마실 것과 음식을 대접받았는데요. 달라스, 사소록, 폐흑, 폐흑 미다르, 후디 등 다양한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일상 - 놀고,

RaonAtti



전기와 인터넷이 없는 로뚜뚜에서는 시간이 정말 느리게 갑니다.
쉬는 시간에 저희가 하는 활동은 주로 기타 치기, 동네 아이들과 놀기, 독서 하기, 보드 게임이었습니다.

일상 - 자고.



무더웠던 딜리와 달리 고산 지대인 로뚜뚜는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추웠습니다.
아주 잠이 잘 오는 날씨인데다 전기를 쓸 수 없어 아띠들은 자연스럽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밤 뿐만 아니라 낮에도 잠이 많이 와요...;;
로뚜뚜는 풍요로운 자연이 있는 곳이라 밖에서는 개와 함께 낮잠을 자고, 안에서는 도마뱀과 함께 낮잠을 잔답니다.
데헛~!



아띠들은 쉬는 시간에 마을 산책을 자주 다녔는데요.
산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들이 저희와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로뚜뚜 마을을 둘러 싸고 있는 아름다운 산과 예쁜 꽃들을 보며 산책을 하는 것은 아띠들의 소소한 행복입니다.



이른 밤이 찾아오면 전기가 없는 로또뚜는 유난히 어둡고 조용합니다. 아띠들은 그 안에서도 촛불 하나를 켜놓고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나눔을 하고, 내일 활동을 준비합니다. 갑작스런 단전에도 दिल리에 있었을 때보다 그리 놀라지 않았답니다. 전구가 꺼지면 후레쉬를 키고 일기를 쓰거나 독서를 하는 등 어느새 어둠에 익숙해졌습니다.

활동 소감

Anis : 로뚜뚜에서의 일상을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자연’과 ‘공동체’였다. 딜리 또한 한국에 비하면 정말 친환경적이고, 공동체 간의 정이 물씬 풍기는 곳이지만 로뚜뚜는 그 정도가 차원이 달랐다. 거리에 쓰레기가 널려 있긴 하지만 정말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맑은 공기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정말 한 가족처럼 살았기 때문이다. 처음 도착했을 땐, 우리가 과연 이 낯선 곳에 스며들 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정말 괜한 걱정이었다. 모두가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로뚜뚜 현지 간사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도와 주셔서 딜리 때처럼, 아니 딜리보다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딜리와 달리 딜리에선 현지분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그 다음 우리가 마음을 열었다면 로뚜뚜에선 반대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그분들이 우리를 받아주길 기다렸단 느낌이 들기도 했다.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우리에게 친절했지만 우리가 딜리에서 그러했듯, 현지분들이 우리를 낯설게 여겼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로뚜뚜란 지역과 공동체를 존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현지 분들의 마음을 열고,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것 같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던 데에는 그동안 이곳에 오셔서 노력하신 많은 분들의 역할도 많이 컸겠지만... 그렇게 잠시나마 공동체의 일원이 된 이후로는 그 공동체의 사람답게 로뚜뚜의 자연과 삶을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었다. 담배를 필 때면 늘 머리를 비우고 풍경을 감상했으며, 자기 전엔 꼭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을 정리했었다. 또 팀원들과 자주 산책을 나가 현지 간사님들을 비롯해 그곳에서 친해진 사람들의 집에 놀러가 함께 놀기도 했다. 함께 차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며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아이들과 왁자지껄하게 장난을 쳤었다. 그리고 그렇게 신나게 논 뒤에는 집으로 돌아와 마치 엄마밥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마웅 빅토르의 시답을 기다렸다가 맛있게 먹었다. 이런 나날을 보내는 동안 정말 그동안 한국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매일매일이 바쁘고 즐겁다 보니 딜리에서와 달리 한국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그렇기때문에 이전 소감에서도 썼 듯이 로뚜뚜에서의 나날은 너무나 행복해서 정말 내 생에 갑자기 찾아온 행운이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활동 소감

Fina: 로뚜뚜 마을은 전기가 거의 없다시피 한 마을이다. 때문에 전자제품을 거의 쓰지 못하고, 밤에는 촛불을 켜 놓고 팀원들과 나눔을 한다. 처음 로뚜뚜 마을에 도착 한 날, 마을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나는 머리카락을 말린다고 드라이기를 콘센트에 꼽았다. 근데 드라이기를 꼽자마자 우리 집의 모든 전기가 나가 너무 당황스러웠고 죄송스러웠다. 또 딜리와는 차원이 다르게 물이 자주 끊겨, 빨래를 일주일에 한번 씩 하다 보니 한 번 빨래하는데 한 두 시간은 기본이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전기와 물이 부족한 로뚜뚜마을에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낮에는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독서를 할 수 있고, 밤에는 상상 속의 밤하늘을 실제로 바라보며 팀원들과 수다를 떨기도 한다. 무엇보다 로뚜뚜 마을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 마을 사람들은 라온아띠를 항상 잘 반겨 주신다. 그래서 나도 자연스럽게 마을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평일 쉬는 시간에는 마을아이들 집에 놀러가 같이 게임을 하기도 하고, 산책을 하며 마을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 주말에는 아예 마을 대산책을 나가는데, '오늘은 누구 집을 놀러갈까~?' 흥얼거리면서 마을 사람들 집에 찾아가 같이 대화하고 노는 것이 취미이자 낙이다.

라온아띠 활동을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소속감을 느껴보고 싶어했는데, 로뚜뚜 마을에 살면서 '마을 안의 소속감'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다.

활동 소감



lopez: 로뚜뚜마을에서는 마웅 빅토르, 마웅 줄리또가 주로 식사를 만들어 주신다. 딜리에 와서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를 하는 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 마을에서 간사님들이 해 주시던 밥이 생각난다. 나는 남이 해주는 밥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맛있게 잘 먹는다. 시답(인도네시아 라면)세 끼라고 팀원들과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절대로 질리지 않는 그 맛에 중독됐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 로뚜뚜에서 먹는 간사님들이 해주시는 밥!

아침은 따뜻하고 달콤한 차와 커피, 그리고 빵이 열어준다. 밤새 잠긴 목을 금방 풀어주는 마법의 열쇠다. 차와 커피의 맛이 특히 끝내 주는데, 이 단 맛을 표현하자면 달달하다. 달콤하다. 달착지근하면서 달콤새콤하기까지 하다. 마을에서 먹어 더욱 단 맛이 나는 걸까? 아침 먹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진행하시는 수업을 참관하거나 자리를 비우시면 직접 준비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초등학교는 일정이 모두 오전에 끝나고 다시 걸어서 집에 간다. 우리 집은 마을 커피 가공장인데 무척 넓어서 어디서든지 밥을 먹고 쉴 수 있다. 주변을 돌아보면 늘 비현실적인 공간이 눈에 들어와서 매번 볼때마다 새롭고 놀랍다. 대부분 날이 좋지만 이런 때면 저기 멀리 산과 산을 넘어 들판과 강, 그리고 사메의 바다까지 보인다. 혹시 악어가 살까? 상상도 해본다. 카메라로 담을 수가 없는 이 벅찬 광경을 가슴속 깊이 담는 것이 마을의 일상이기도 하다.

점심 먹고 아띠끌라쎄에 가기전인 긴 쉬는 시간인데, 이 때는 팀에서 정한 범위 안에 있는 마을의 길을 걷는다. 간사님들의 집에 놀러가고 학교에서 봤던 아이의 집을 찾아 놀러간다. 그 때마다 팀에서 정한 이동 범위가 너무 좁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 아쉬울 뿐이다. 아띠끌라쎄 이후에 마을 성당이 열리면 가서 미사를 드리거나 학교에 남아 아이들, 청년들과 함께 배구를 즐긴다. 축구, 농구, 야구를 주로 즐겼던 나에게 배구는 또다른 즐거움을 주는 공놀이이다. 현채형과 서툴지만 열심히 배구를 했고, 실수가 많아 자주 웃음거리가 되지만 함께해서 즐거운 순간이다. 마을 생활이 다 끝났을 때 현채형과 나는 배구계의 메시와 호날두가 되어 있으리라.

집에 돌아와서 또 아이들과 잠깐 놀다가 밥을 먹으면 7시가 다 되어 가는데 밤은 어느새 찾아온다. 낮에 충전한 태양열에너지가 우리의 유일한 전기 불빛이지만 고장나는 날이 많아 대부분 후레쉬나 촛불에 의지해서 밤을 보낸다. 새까만 마을의 밤이지만 무섭거나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너무나 아늑하고 멋진 마을의 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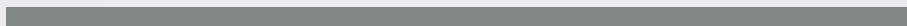
활동 소감



Beti: 로뚜뚜에서의 일상은 꽤나 단조로운 편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나름 비중 있는 일은 전기나 물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전등을 켜 두고 나눔을 하거나 최대한 절약해서 샤워를 하는 등 한 달 전보다 단전과 단수에 그리 놀라지 않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기가 끊어진 밤에는 주위가 캄캄해서 다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마웅이 갖다 두신 빵을 먹으며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오전 수업을 듣고 나서는 새답이라는 라면을 반찬으로 해서 밥을 먹고 오후에 진행할 아띠끌라쎄를 준비합니다. 아띠끌라쎄가 끝나면 집으로 다시 걸어와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고, 기타를 연주하며 저녁을 기다립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는 씻고 나눔, 그리고 내일 할 아띠끌라쎄 이야기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쇼핑 플라자가 없고 전자기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없는 일상이 무료했고 심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었고 늘 배우고 싶었던 기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을을 이리저리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많은 걸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도시가 좋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로 시간을 보내면 괜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로뚜뚜 마을에서 매일 비슷한 하루를 보내면서 여기 오지 않았다면 몰랐을 삶의 다른 패턴과 스타일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심하게 지냈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더 소중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개인에세이



개인 에세이

lopez: 10월에는 3주가 조금 안 되는 시간을 로뚜뚜마을에서 보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지금까지 합하면 두 달을 동티모르에서 지냈는데, 나를 포함한 팀원들 모두 딜리에 있을 때보다 로뚜뚜에서 떼뚝어가 많이 빠르게 늘었다. 수업 참관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정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고, 사전에 큰 준비 없이 부딪히는 경험이 많다 보니 급속도로 언어가 늘었던 것 같다. 많이 말하면 많이 배울 수 있는 경험을 준 지난 3주 간의 시간에 감사하다. 로뚜뚜 선생님들이 말씀해주신 '서로의 경험 교류'라는 말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생전 처음 수업을 진행해보기도 했고, 동티모르 마을 문화와 만날 수 있었다. 내가 나눈 것보다 받은 것이 너무 많다. 감사하다.

10월 마을에서 보내는 짧은 시간 엄청나게 열심히 외운 게 있다. 바로 이름이다. 내가 매일 가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었다. 수업에 들어가서 A4용지에 이름을 받아 적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마을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물어보고 수첩에 적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만나다 보니 지금은 학교의 아이들 반 이상은 이름을 알게 되었다. 학교와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서 헷갈리지만 이름을 알고 있으니 아이들과 만날 때마다 더 가까워지는 걸 느꼈다. 처음에 보기만 해도 도망을 가던 아이들도 이제는 한 명, 두 명 그렇게 손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로뚜뚜에 올라가면 더 열심히 이름을 부르자. 그리고 오래도록 기억하자.

10월의 로뚜뚜는 커피 채집이 마무리된 시기여서 마을이 한산한 분위기였다. 그래서 커피 채집이 한창인 9월 전의 마을이 궁금했다. 그래도 내가 먹었던 커피 한 잔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출발지에 있으니 이것으로 아쉬움을 달래고 다음을 기약해본다. 마을의 동화같은 모습과 맛있는 공기, 별의 연주, 그 밖에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사람들. 로뚜뚜를 담기에는 너무나 작은 보고서다. 이 보고서를 마치고 나는 사랑하는 로뚜뚜에 다시 간다. 행복하다.

개인 에세이

Anis: 처음엔 로뚜뚜에 가는 것이 그리 내키지 않았다. 비록 한 달이지만 나름 정이 든 딜리와 딜리에서 만난 사람들과 멀어진다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전기도 물도 없는 지역에서 내가 싫어하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해야 했기에 말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정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로뚜뚜의 아름다운 자연을 본 순간 이런 감정은 파도에 집어 삼켜진 모래성처럼 스르르 무너지고 사라졌다. 대신 이런 곳에서 산다면 무얼 하더라도 즐겁겠다는 기대감이 내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로뚜뚜의 간사님들 또한 딜리의 간사님들 못지 않게 재밌고 좋은 분들이었기에 금세 로뚜뚜의 분위기에 몰들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었다. 하지만 굳이 친해지고 싶지 않는 아이들과의 활동이 처음엔 답답하고, 짜증이 났다. 예상은 했었지만 내가 이토록 아이들을 안 좋아하는지 새삼 깨닫는 나날이 이어졌다. 그러나 최대한 그 모습을 티 내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연기했다.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란 것이 오묘해서 아무리 좋아하지 않아도 자주 보다 보니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렸고, 아이들이 귀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줍음이 많아 나를 어려워 하던 아이들 또한 나를 만나는 시간이 점점 쌓여가며 더 이상 나를 어려워하지 않기 시작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정을 붙이고 마음을 열어 가는 과정을 겪으며 아이들과 정말 많이 친해진 것 같다. 그 결과 상이처럼 많은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게 되었다. 그리고 가끔씩 그 아이들의 집에 놀러 가거나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도 함께 어울리는 관계가 되었다.

낮에는 이렇게 아이들과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과 어울리고, 저녁에는 팀원들 혹은 간사님들과 어울렸다. 그 어울림 속에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다. 그 모든 순간이 때론 피곤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즐겁고 행복했다. 심지어 로뚜뚜에서 사는 것에 대해 고민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좋았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울리며 하루하루를 알차고 충실하게 보냈기에 딜리로 돌아 온 지금도 로뚜뚜에 대해 많이 생각이 난다. 딜리에 온 첫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로뚜뚜에 돌아 가고 싶다는 생각 뿐이다. 얼른 다시 로뚜뚜로 돌아 가고 싶다. 그리고 다시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로뚜뚜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

개인 에세이

Fina: ‘이제 티모르 생활에 다 적응했네’ 할 즈음에 나는 편도염에 걸렸다. 목이 조금 아팠지만 무시하고 그대로 아피글라쎄 수업을 진행한 탓에 더욱 편도염이 심해졌고, 결국 4일동안 앓아 누웠었다. 티모르에서 2달 가까이 생활하면서 한 번도 한국을 그리워한 적이 없었는데, 아파 누워있는 4일동안 매일매일 한국 생각이 났다. 한국에 있는 내 소중한 사람들이 너무 보고싶고, 차라리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기만 할 바에는 한국에서 편히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내가 해야 할 부분들을 남은 팀원 3명이 채워주는 것에 있어 팀원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활동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적으로도 힘들었던 것 같다. 팀원들의 배려와 간사님들의 챙겨주심 덕분에 빨리 기운을 차려 다시 활동을 할 수 있었기에 팀원들과 간사님께 너무 감사하다.

로뚜뚜에서는 아이들과의 만남이 일상이다. 아피들의 주 활동이 ‘아피글라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집에서 쉬고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같이 놀자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직접 아이들 집에 찾아가 같이 놀자 하기도 한다. 혼자 산책을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마을 몇몇 아이들이 내 옆으로 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기도 한다. 때문에 나는 아이들과 로뚜뚜 마을의 ‘이웃’이자 ‘친구’로 자연스럽게 관계 맺음을 할 수 있었다. 또, 달라스(한국의 고구마와 비슷)튀김을 했다며 너네도 먹으라고 가져다 주시는 분, 본인 집 근처에 있는 아피들을 보고는 집에 들어와 비스킷과 차 한 잔 하시라는 분 등을 보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 문화 등의 차이를 넘어서진 진정한 ‘이웃’의 개념”을 로뚜뚜 마을에서 엿볼 수 있었다.

로뚜뚜마을에서는 아피들이 짠 프로그램계획 그대로 진행된 적이 거의 없다. 마을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항상 계획했던 프로그램을 그 때 마다 변형하여 진행하였다. 오전 수업 참관만 해도 그렇다. 수업을 참관하러 오전에 학교를 가는데, 어느 순간 아피들이 오전 정규수업을 주 교사로서 진행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것에 짜증도 나곤 했는데, 로뚜뚜마을에서 지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운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불평하는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새로운 계획을 즐겁게 생각하는 법을 말이다. 로뚜뚜 마을에서의 생활은 나를 좀 더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아피글라쎄 프로그램 상의, 마을 행사 참여 여부 상의 등 로뚜뚜 마을에서 지내는 동안 아피들은 팀 적으로 상의하고, 회의하는 일이 많았다. 딜리에서의 나를 돌아보면 팀 상의를 할 때마다 ‘내 생각은 이런데~’ 혹은 ‘나는 이래서 이렇게 생각해’ 라고 의견을 말했었다. 요즘의 나는 팀의 입장에서 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있다. 회의 주제를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팀의 입장에서, 현재 팀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견을 결정하려는 자세를 점점 더 배우고 익히는 중에 있다. 근데 사실 아직까지도 ‘팀vs개인’의 상황이 오면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 잘 모르겠다. 팀 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의견과 감정은 절대 무시되면 안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허나 라온아피는 팀 활동이기도 하다. 팀 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나를 팀에 맞춰야 할 때도 있다.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아직까지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야 할 지 고민이 많지만, 팀원들과 건강하게 토론하고자 노력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다.

////////////////////

Beti: 어느새 티모르에 온 지 두 달째라니 시간은 정말 빠르네요.. 9월이 새로운 환경과 문화, 사람들에 적응하는 시간이었다면, 10월은 이제 익숙해져 다양한 활동을 시도할 여력이 생겼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달의 주요 활동은 로뚜뚜 마을에서의 생활입니다. 그곳에서 특히 사람을 새롭게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는 초기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활동의 대상이 초등학생이다 보니 아이들과 친해질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쉽게 다가 오지 않고 얼렁거리기만 해서 답답했고 빨리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가자 아이들이 조금씩 나를 받아들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3주 정도 지낸 터라 많이 친해졌다는 느낌은 아직 없지만 다른 사람의 속도를 존중하면서 나도 먼저 다가갈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보았습니다. 특히 모두를 일정한 속도로 달리게 하려는 한국 사회를 생각하며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로 커뮤니케이션은 역시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떼똥어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티모르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내 의도를 정확하게 언어상으로 전달하지 못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내 떼똥어가 초등학생 친구들보다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모국어를 사용하는 팀 내 커뮤니케이션도 어렵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달은 아피끌라쎄를 위한 팀 회의 등에서 팀원들과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말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당연히 이해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했다는 걸 자각했습니다.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만일 상대가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설명하면 된다는 가벼운 마음과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말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절대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번째로 라온아피로서 동티모르에 와 있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보았습니다. 팀으로 파견된 만큼 계속해서 팀 내에서 나는 무엇인지, 팀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개인과 팀의 의견이 다를 때 나는 어디까지 맞춰나갈 수 있을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그 일치점을 찾기 위해서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진전





로뚜뚜 마을의 카우보이



개팔자가 상팔자



호식이와 호섭이



Shall we dance?



귀밥 파는 Anis ㄹ: 애들이 말을 안 듣네ㅜㅜ



삼촌 Lopes와 조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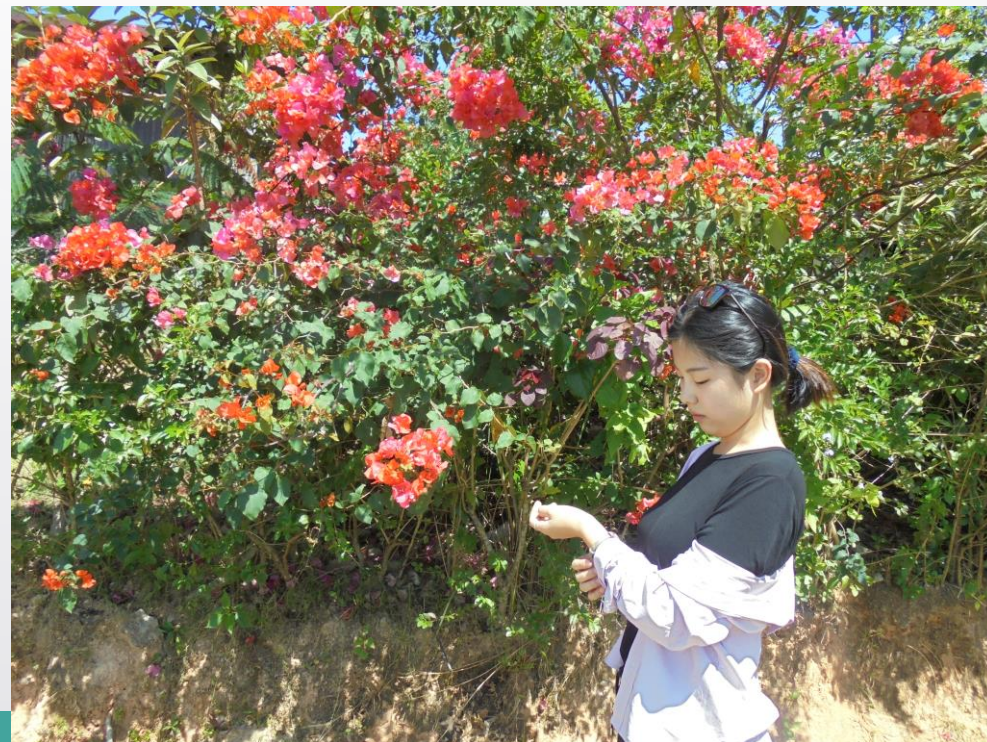
로뚜뚜 초등학교의 막내들!



아띠글라씨 홍보를 도와준 쿨가이들



Hau Hadomi O (I Love You)



누가 꽃이게? 데헛~ㅇㅅㅇ!



애들아 사진 좀 같이 찍자고~



됐다 그냥 혼자 찍을래!



내이름은 Fina, 오늘 생일이지.



아쉬우니 한 장 더 하죠.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부랑코
-Betie-



포오도 모글 사아람~?
Anis: 하이잇~!



흔한 로또뚜의 커피꽃.png



흔한 로또뚜의 풍경.jpg



오늘도 뚝뚝 ♪ 아띠는 뚝뚝 ♪
열심히 일을 하네 뚝뚝 ♪

Ate fulan oin ~
다음달에 봐요~

